건강 칼럼

실명 가능성 높은 녹내장, 82%가 무증상… 정기적 안과 검진 중요해

윤 삼 영
첫눈안안과 대표원장

녹내장이란 안구 내의 압력이 서서히 높아져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다. 녹내장은 방수(눈 속의 영양을 담당하는 액체)가 배출되는 길이 좁은 경우, 또는 방수의 과잉생산으로 눈 속에 방수가 많이 고이게 되어 압력이 올라가게 되어 발병하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녹내장을 높은 안압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정의했으나, 요즘은 안압의 고저와 관계없이 시신경 손상이 생겨 시야 장애를 갖는 질환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신경 손상 과정은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또 발병 초기엔 특별한 증상도 없어 많은 사람이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체 녹내장 환자의 82%가 무증상이었고, 갑자기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 눈의 통증과 충혈, 두통, 메스꺼움, 구토, 시력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급성 녹내장'은 5%에 불과했다.

서양인은 안압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고 안압성 녹내장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 전체 환자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많다. 따라서 안압 검사 외에 시신경 유두검사나 시야검사를 통해 녹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안압 측정으로 녹내장 환자의 3분의 1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시신경 촬영까지 하면 3분의 1을 더 발견할 수 있다. 40대 이상, 당뇨, 고혈압환자, 고도근시,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자,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1년에 1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해도 완치가 불가능하다. 왜 안압이 높아지고 시신경이 손상되는지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다. '목표수준'까지 안압을 떨어뜨려 시신경의 손상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치료다.

가장 보편적인 치료방법은 약물 치료이다. 최근에는 시신경섬유의 손상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시키는 효과까지 같이 있는 약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압강하 효과 없이 시신경 보호 작용만 있는 약물도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녹내장 환자의 첫번째 치료라 할 수 있다. 녹내장의 치료는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그리고 수술이 있다. 안약으로 시신경의 손상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레이저치료나 수술을 한다. 그러나 한 번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킬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할 뿐이다.

급성 녹내장의 경우 레이저를 이용하여 특정 부위를 치료한다. 급성폐쇄각 녹내장에서 시행하는 주변부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외에 레이저 홍채 성형술, 개방각 녹내장인 경우는 레이저 섬유주성형술 등도 시행된다. 레이저 치료 후에도 약물 요법이나 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용한 시력이 없는 경우에는 단지 안압 강하만을 목적으로 레이저 모양체 광응고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녹내장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눈이 불편하다고 아무 안약을 넣거나 장기간 사용하면 약물성 녹내장에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정기검진을 통해 발병의 유무와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고문

'뿌리기업, 농사용 고객 고효율기기 구입 지원금 1.5~2배 상향'

한 송 대
한국전력
에너지효율부
차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는 국제연료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져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상승을 불러왔으며, 작년 겨울 한파에 의한 난방수요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된 상황입니다.

한전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 올해도 고효율기기 교체지원사업과 에너지캐시백 등 소비절약사업에 EERS 예산을 투입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여 국가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사업은 전기 사용자가 기존의 일반 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혹은 신설)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기기는 한전이 사업대상으로 고시한 고효율LED, 고효율인버터, 고효율냉동기, 시설원예 히트펌프 등 총 18개 품목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에 취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금 상향과 지원품목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간 뿌리기업(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던 취약부문 지원을 농어민까지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시설 농어업 고객에 대하여는 활용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LED, 변압기,

인버터, 공기압축기 등 품목 위주로 고효율기기 교체시 지원금을 1.5~2배로 상향 지급하며, 뿌리기업은 지원품목을 기존 4개에서 3개(공기압축기, 고효율 펌프, 원심식 송풍기)를 추가하고 지원금을 1.5배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접수는 관할 한전 지사에서 하고 있으며 접수기간은 금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사오니 고효율기기 교체 계획이 있으신 고객님들은 미리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에너지캐시백 사업은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절약사업으로 과거 2개년 대비 전기사용량을 줄인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올해는 가입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상향으로 참여율을 높여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한전의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에 뿌리기업과 농어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 설

세계여성평화그룹의 과제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이 지난해 9월 '2022 세계여성평화그룹 어셈블리'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속가능한 평화 실행을 위한 여성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평화 활동의 성과를 전 세계 여성들과 공유하고 평화 제도화의 청사진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했다. 현재 지구촌은 당면한 분쟁으로 새로운 국제법 제정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WPG는 132개국의 105개 지부, 500여개 협력단체와 함께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기반으로 법제화 지지와 촉구를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2022년 진행한 평화 사업의 성과와 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에 수많은 지구촌 여성들이 함께 협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66차 UN CSW' 행사 개최 및 참여가 제시되었다. IWPG는 지난해 3월 코트티부아르 여성가족아동부와 공동으로 사이드 이벤트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엔 대사와 여성부 장관들을 비롯 세계 각국 200여명의 해외 여성 인사들이 참여했다.

가상박람회를 통해 93개국 1200여명의 여성들과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응해 국제사회에 DPCW의 국제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주요 성과로 제시되었다.

IWPG는 전쟁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전쟁을 중지하라는 여성들의 외침을 담은 서신을 유엔, 러시아 및 각국 여성 대표들에게 전했다.

전쟁을 규탄하는 여성들의 성명이 각국 인사들에게 전해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전 세계 39억 명의 여성들에게 위아원(WE ARE ONE)을 강조할 때이다. 평화 실현을 위해 전 세계 여성들이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소주성(所主成)이 풀어야 할 과제

소주성(所主成)이란 '소득 주도 성장'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소주성이 주창하는 고용·실업 등 각종 급여나 수당, 지원금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증세와 세수 확보를 통해 마련한 돈을 다시 재분배하는 역할이 필수적이다.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소득분배를 간과해 온 기존의 경제모델을 비판하면서 소득의 형평성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에 긴요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은 그동안 투자와 수출 진흥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경제 발전을 보였다. 반면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불균형으로 수출 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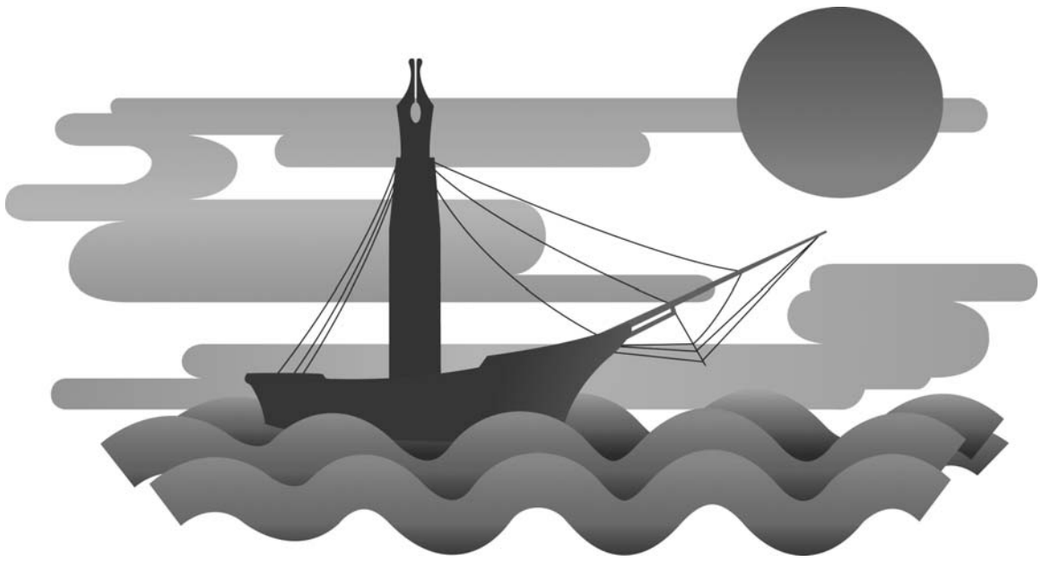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낙수효과가 실패했고, 분수 효과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소득층 소득이 증대되면 경제가 성장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를 제시한다.

이들은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분수 효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이 3대 경제 정책 기조로 설정된 적도 있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 성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소득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